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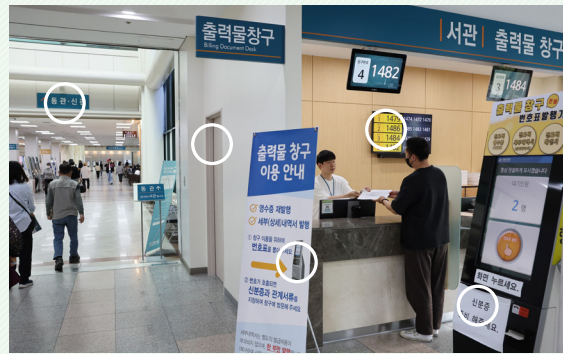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위한 행사가 최근 잇따라 열렸다. 4월 29일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재단 한국지회가 테디베어 인형 600개를 기부했다. 5월 4일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햇살나무'와 HD현대1%나눔재단, 메이커위시코리아가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공연, 캐리커처 드로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5월 4일 임호준 어린이병원장이 환아에게 선물상자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7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활력 충전 웃음 가득, 비타인D 데이 화보'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수술간호팀 홍순형 대리가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6월 1일(월)
 발표 제775호(2026년 6월 15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 | | |
|---|---|
| <p>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박수현(영상의학팀)</p> <p>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지연(디자인·콘텐츠팀)
 유혜숙(수술간호팀)</p> <p>아로마틱 핸드크림
 김은주(소화기내시경팀)
 진주희(건진운영팀)</p> | <p>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하은(국제교류팀)
 원은재(암병원간호2팀)</p> <p>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고은정(응급간호팀)
 김주은(중환자간호팀)
 심예원(진단검사의학팀)
 장하진(간호교육행정팀)
 정주은(어린이병원간호팀)</p> |
|---|---|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73 2026. 5. 15



힘든 치료를 이겨낸 작은 영웅들

우리 병원이 힘든 치료와 오랜 투병 기간을 견뎌낸 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 1박 2일의 특별한 여행을 선물했다. 질병과 용감하게 싸워 온 환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아워 히어로즈(Our Heroes)' 프로그램이 이틀간 울산에서 진행된 것이다. 환아와 가족들은 여행 첫째 날인 5월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거대한 선박이 만들어지고 있는 야드를 둘러보았다. 둘째 날에는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 HD FC 선수들과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새로운 꿈과 용기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5월 10일 소아암 환아와 가족 40여 명이 울산 HD FC 홈경기에 초대받아 경기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4면)

- 03 NEWS '프라이빗 AI 지식 검색 시스템' 구축
- 07 AMC 광장 외래가 더 나은 진료의 관문이 되도록

- 10 헬스에디터 자궁경부암 백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 14 사람 & 이야기 정맥주입 간호의 내일을 여는 사람들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52개국 3,200여 명 심장 전문가 한 자리에



제31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26) 둘째 날인 4월 30일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서 심장내과 강도윤 부교수팀(가운데 화면)이 좌주간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연한 뒤 패널과 토론하고 있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사장 박승정)이 주최하고 우리 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제31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26)가 4월 29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TCTAP는 1995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전 세계 심장 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심장 분야 국제 학술행사다. 올해 학술회의에는 52개국 3,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

으며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콜롬보, 영국의 데이비드 폴태가트, 독일의 에버하드 그루베, 일본의 켄야 나스, 중국의 사오량 천 등 세계적인 심장 석학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관상동맥 중재시술 ▲판막 및 구조적 심질환 ▲혈관 내 치료 ▲좌주간부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이미지 및 생리학 ▲만성 폐색 병변 등을 주제로 심혈관 중재치료의 최신 흐름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션들이 진행됐다.

특히 학회의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는 우리 병원을 비롯해 미국의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센터, 일본의 도요하시 심장센터, 대만의 국립대만대학교병원 등 7개국 9개 센터가 참여해 실제 시술 과정을 실시간 공유했다. 전문가들의 해설과 토론이 더해지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는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전 세계 심장 전문가들이 최신지견을 공유하며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의 장이 되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치료법이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효율 높이는 기전 규명



신동명 교수 이승운 박사 김경곤 부교수

세포유전공학교실 신동명 교수·이승운 박사, 디지털의학교실 김경곤 부교수팀이 줄기

세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 Dnmt3L이 세포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자적 원리를 규명했다. Dnmt3L 단백질은 줄기세포의 품질과 분화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배양 환경에 따라 쉽게 변질되는 특성이 있

었다. 연구팀은 줄기세포의 품질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배양 조건(2i, Serum 등)에서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Dnmt3L 단백질 내 특정 아미노산 잔기인 K238과 K412 지점에서 아세틸화라는 후성유전학적 변형이 발견됐다. 아세틸화가 일어나면 Dnmt3L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세포 내에 과도하게 쌓인다. 면역침강법(Co-IP) 실험 결과, 줄기세포 유지에 중요한 Prdm14와 G9a 단백질이 Dnmt3L과 결합해 아세틸화를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특정 단백질 복합체가 줄기세포의 유전적 정보를 보호함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실험 및 분자 의학」 최근호에 게재됐다.

‘프라이빗 AI 지식 검색 시스템’ 구축



IT전략팀 임연석 주임(왼쪽)이 간호교육행정팀 여건영 대리에게 프라이빗 AI 지식 검색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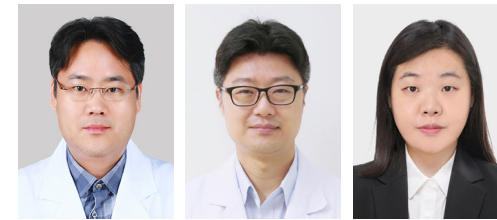
우리 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폐쇄망 환경에서 구동되는 ‘프라이빗 AI 지식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라이빗 AI는 외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관 내부 서버에서만 AI 모델을 운영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사용한다. 생성형 AI의 이점을 온전히 활용하

면서도 환자 정보가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실현했다. 외부 솔루션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병원 내 IT 인력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자립도를 한층 높였다.

의료진은 이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이나 업무 규정을 질문 한 번으로 수 초 내에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삽입관 탈거 시 응급 처치 및 재삽관 프로토콜’, ‘법정 감염병 확진 환자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매뉴얼 확인이 필수적인 긴급 상황에서 시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RAG(검색 증강 생성)이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문서를 의미 단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기술이며, RAG는 AI가 실제 저장된 문서를 근거로 답변하도록 해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AI 기반 폐암 진단 바이오센서 개발



이창환 교수 진준오 교수 김민지 부교수

폐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국내 암 발생률과 사망률 1위 암이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는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8%에 불과해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창환 교수·김민지 부교수, 미생물학교실 진준오 교수팀이 최근 폐암을 유발하는 바이오마커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센서 키트를 개발했다. 폐암 바이오마커인 USE1은 폐암 환자의 92.5%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로, 2017년 이창환 교수가 세계 최초로 보고

한 후 폐암 진단과 치료의 주요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먼저 AI 딥러닝 기반 구조 예측을 활용해 USE1 단백질 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DNA 조각인 ‘압타머’를 선별했다. 이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DNA 증폭 기술(회전환복제 기법, RCA)을 통해 형광 신호를 극대화하고, DNA 구조에 형광 나노입자인 ‘양자점’을 결합한 신호 증폭 시스템을 구현했다. USE1이 존재할 경우 강한 형광 신호를 발생시켜 나노바이오센서 기반 진단 키트를 통해 특수 장비 없이 UV 조명 하에서도 육안으로 결과를 판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연구팀은 실제 환자 조직을 대상으로 임상 검증을 시행했다. 폐암 조직과 정상 조직 각 30쌍을 분석한 결과 진단 정확도(AUC) 96%, 민감도 100%, 특이도 88.3%를 기록하며 우수한 진단 성능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널 오브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소아암 환아 가족에게 특별한 여행 선물



'아워 히어로즈' 울산 여행에 참여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 보고 있다.

수, 어린이병원 이은옥 과장도 동행해 환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환아 열한 가족은 첫째 날인 5월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야드를 둘러보며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현장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울산대교 전망대,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둘러본 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해 프로축구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경기 시작 직전에는 울산 HD FC 선수들과 직접 손을 맞잡는 '승리의 하이파이브' 행사에도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어 울산 HD FC와 부

우리 병원이 5월 9일부터 이틀간 소아암 환아와 가족 40여 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여행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소아암 등 중증 질환을 극복했거나 치료 중인 환아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아워 히어로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워 히어로즈는 '오랜 시간 질병과 맞서 싸워 온 작은 영웅인 환아들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 가족들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 비용 전액은 HD현대1%나눔재단이 지원했다.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강성한 부교

천FC의 경기를 관람하며 있는 함껏 목청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김하진 군(가명, 18세)은 "지난해 조혈모세포 이식 후 첫 가족 여행이다. 열기가 가득한 축구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에너지를 얻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서울아산병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강성한 부교수는 "중증 환아들에게 치료 이후의 시간 역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 여행을 통해 환아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암 'MY HOPE 크루' 1기 해단식



'MY HOPE 크루' 1기 해단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젊은 암 환자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확립과 또래 암 환자의 소통을 돕는 'MY HOPE 크루' 1기 해단식이 4월 30일 열렸

다. MY HOPE 크루는 의료, 심리, 사회, 운동, 영양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청년 암 생존자 통합지원 프로그램이다. 젊은 암 환자와 가족, 친구 등으로 구성된 크루는 지난해 11월 창단 이후 6개월간 월 2회 이상 달리기, 마라톤, 등산 등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SNS를 통해 암 환자들과 소통하며 젊은 암 인식 개선에 힘써 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크루 9개 팀과 송시열 암병원장을 비롯한 암병원 의료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성과 및 활동 소감 발표, 수료증 전달 등이 진행됐다. 크루원들은 등반과 마라톤 완주 등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 경영진 방문



김태원 연구원장, 이나 리 로슈 종양학 부문 부사장(앞줄 네 번째,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나 리 종양학 부문 부사장을 비롯한 로슈 종양학 연구개발 부문 경영진이 5월 6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우리 병원은 2015년 로슈와 암 치료 협력을 위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imCORE 협약 체결 이후 전략적 연구개발 파트너로 협력해 오고 있다. 방문단은 김태원 연구원장과 류마티스내과, 신경과, 종양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을 만나 주요 연구 분야와 임상시험 인프라를 공유했다. 또한 항암 및 비종양 분야 연구 전략과 CAR-T 치료를 포함한 세포치료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술실 감염관리의 날 행사



수술실 감염관리의 날 행사에서 직원들이 올바른 외과적 손소독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감염관리실과 수술간호팀이 4월 28일부터 이틀간 '수술실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수술실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수술실 근무 직원 470여 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외과적 손소독, 수술부위 감염 예방 번들, 삽입기구 관련 감염관리 등 교육 영상 시청 ▲기구 삽입 시 소독, 수술 절개 부위 피부 소독 등 핵심 술기 실습 등에 참여했다. 또한 모바일 퀴즈와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후원자		(단위: 원)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주식회사 에이치엠	100,000,000	(주)아이디진정성 5,000,000
LK 그룹	100,000,000	(주)아이디진정성	15,000,000	(주)행복한씨엠오 5,000,000
강미연	500,000	(주)오영	100,000,000	허은오 300,000
공예준	100,000	최병인	10,000,000	화신주방산업(주) 50,000,000
다비다성형외과의원	2,000,000	화신주방산업(주)	50,000,000	
박성호	50,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박원호	100,000,000	불우환자 지원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박정호	10,000,000	HD현대1%나눔재단	20,000,000	외과 여의사회 6,000,000
법무법인 울	1,000,000	김진휘	10,000,000	임호준 3,000,000
유해진	100,000,000	나누리산악회	100,000	진료협력팀 1,000,000
이성욱	100,000	나재성	1,000,000	
이아인	1,000,000	도민하	5,000,000	불우환자 지원
이은혜	300,000	마디척재활의학과	1,000,000	신우아 200,000
조인숙	10,000,000	박성호	50,000,000	외과 여의사회 1,000,000
조정근	100,000,000	예수이름교회	1,000,000	
(주)레이어	100,000,000	정준호	1,000,000	
(주)승현	100,000,000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200,000,000	

- 2026년 4월 30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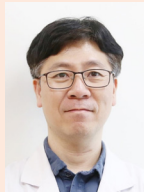
동 정

황규삼 교수, 문태호 레지던트 학회서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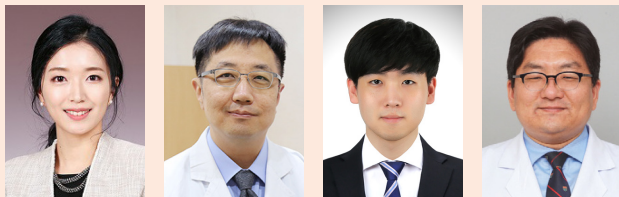
마취통증의학과 황규삼 교수와 문태호 레지던트가 최근 열린 대한이식마취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황 교수는 '만성 간질 환 기반 급성 간부전 환자의 간 이식 후 사망률 예측 모델의 정교화'를 주제로 '미국마취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술대상을 받았다. 문 레지던트는 '좌심방 크기 단독이 아닌, 좌심실 크기에 대한 상대적 좌심방 확장의 간이식 후 생존 예측'을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정기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이공학연구소 정기석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교수는 희귀 혈관육종암 맞춤 치료를 위한 환자유래 오가노이드 모델을 세계 최초로 확립했다. 높은 기술적 신규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가연구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소화기내과·의공학연구소 의료진 학회서 수상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 소화기내과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의공학연구소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팀이 최근 열린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학술대회에서 '기능적 내강 영상 탐침(FLIP)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임피던스 기반 4차원 마노메트리를 활용한 식도 위접합부 확장성 평가를 통한 아칼라지아 진단 향상'을 주제로 젊은연구자상을, '확장 유발 폐쇄의 운동학적 특징으로서 반복적 동시 수축: 마노메트리-FLIP 불일치에서의 유행률과 임상적 의미'를 주제로 최우수연구상을 받았다. 또한 서울국제소화기병심포지엄에서 'FLIP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임피던스 기반 4차원 식도내압검사를 이용한 팽창 매개 폐쇄 진단'을 주제로 최우수연구상을 받았다.

장예림 부교수 우수초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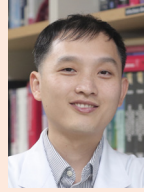
중환자-외상외과 장예림 부교수가 4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받았다. 장 부교수는 '중환자실 기반 연하 재활치료와 연하 관련 임상 결과: 탐색적 비교 코호트 연구'를 주제로 중환자 재활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양지명 부교수 이안과 의학상



안과 양지명 부교수가 4월 28일 이안과 의학상을 수상했다. 이안과 의학상은 45세 이하의 젊은 안과학 연구자들을 독려하고 우리나라 안과학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양 부교수는 '유리체 내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억제제 주입에 따른 심뇌혈관 이상 반응'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정병관 조교수 최우수구연상



병리과 정병관 조교수가 4월 23일부터 3일간 열린 한국유방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정 조교수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면역 회피를 유도하는 종양 내 대식세포 아형의 역할 규명'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유주노 임상강사 비디오발표 최우수상



위장관외과 유주노 임상강사가 4월 23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멘토-멘티 비디오발표 최우수상을 받았다. 유 임상강사는 '안전 복강경 원위부 위 절제술 델타 문합'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인 사

보직임명

내분비외과 교수 정기욱 임: 갑상선암센터소장
소아청소년전문의 임상전임강사 박유경 임: 소아신속응답팀장

- 2026. 5. 1부.

외래가 더 나은 진료의 관문이 되도록



고경남
진료지원실 외래부장

우리 병원 외래는 늘 분주하다. 어떤 날은 공항 출국장 같고 어떤 날은 출퇴근 지하철역 같다. 환자는 새벽 기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고 의사는 밀린 명단에 마음이 바빠지며 간호사와 원무팀도 쉴 틈 없이 움직인다. 모두가 열심히 움직이지만 만족감보다 피로감이 남을 때가 많다. 믿고 찾아오는 환자가 많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공간·인력·장비가 무한히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지 걱정도 든다. 지금도 바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결국 외래 운영은 단순히 진료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진료의 흐름 안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환을 본다'는 것은 단지 명단에 한 명을 더 올리는 일이 아니다.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이고, 외래는 바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출발점이다. 우리 병원의 앞선 의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만나는 곳이 외래이고 결국 우리의 미션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내 최대 규모임에도 대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다는 뜻이다. 환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외래는 열려 있어야 한다. 예약이 몇 주씩 걸리는 먼 병원으로만 느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편한 동네 병원이 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외래 문턱을 무조건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닌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의정사태로 위축됐던 외래·입원·수술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라는 정책적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사명과 정책적 요구, 진료 전달 체계를 함께 고려하며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회복보다 그 숫자를 통해 우리 병원의 미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올해 진료지원실은 외래운영협의회를 통해 세 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진료과별 간담회를 통해 우리 병원의 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가 닿도록 신환 수용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지원, 회송 연계 등 현장의 요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 한다. 둘째, 검사·입원·수술 과정의 병목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신환·과초·의초·재진이라는 구분에 머물기보다 환자의 의료적 요구도에 맞춰 자원 배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려 한다. 최근에는 예약 취소 슬롯을 급한 환자에게 신속히 연결하고, 상담을 원하는 환자에게 즉각 회신 전화를 드리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이 환자와 직접 마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히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우리 병원은 도전과 열정으로 성장해 왔다. 그 성장은 구성원의 헌신 위에서 가능했지만 헌신도 충전이 돼야 지속된다. 배터리 잔량이 3%인데 "절전 모드로 더 달려봅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진료지원실의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의료 서비스가 닿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과 의료진이 불필요한 병목과 지연으로 지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진료 후에 환자는 '역시 서울아산병원'이라며 만족해 하고, 의료진은 '오늘도 바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치료의 한계를 넘어 가능성을 찾아 나서다



신경과 김현진 조교수 근위축측삭경화증(ALS)과 같은 신경퇴행 질환은 환자와 보호자가 질환의 특성과 치료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김현진 조교수는 환자와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치료를 개발할 원동력을 얻는다.

‘뇌’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김현진 조교수는 고등학생 시절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를 읽으면서였다. 뇌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과학자의 길도 고려했지만 그의 선택은 실제 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근본 기전을 탐구할 수 있는 신경과 의사였다. “우리 병원에 지원한 것도 신경계 질환 환자를 가장 폭넓게 경험할 수 있고, 연구와 임상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해외 학회 발표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가 좋았고 전공의, 전임의 때 단기 해외 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기회와 성장을 안겨준 병원에 스태프로 임용된 것

이 영광인 동시에 남다른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신경근육 질환과 신경면역 질환 환자를 주로 치료한다. 유전·자가면역·신경퇴행 질환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진단이 까다롭고 치료법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 분야다. 특히 초기 진단에 따라 치료 방향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인 경과를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치료 가능성과 한계를 솔직하게 공유하려고 해요.”

그는 질환의 진단과 환자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

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내용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간다. 또한 재활 치료, 호흡 관리, 영양 관리 등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며 최선의 치료를 찾아 나선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거나 치료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기 대신 다음을 준비하다

치료 가능성을 고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학적 한계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20대 환자가 연하곤란과 구음장애로 내원했다. 중증근무력증이나 뇌졸중을 의심했으나, 여러 검사를 통해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유전형 ALS로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웠다. 김 조교수는 논문을 찾아 보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학회에서 만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닐 슈나이더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개별 치료를 위한 약물 제공 가능성을 논의했다. 투약을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지만 국내 승인 절차에서 좌절되면서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못했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어도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본 경험이자,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임상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가능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치료를 만드는 의사과학자가 되고 싶은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죠.”

나를 움직이는 남은 문제들

김 조교수는 임용 전 카이스트에서 2년간 연구원 생활을 했다. ALS 환자의 뇌 조직으로 체세포 돌연변이를 연구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어오며, ALS의 진행과



예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와 새로운 치료 표적에 관해 연구 중이다. 또한 염증성 근육병의 면역학적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는 하나의 질환으로 묶이던 질환들을 점차 세분화하고 각 아형에 맞춘 정밀 의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초기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가 2차 치료에서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환자 개개인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밀한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왔고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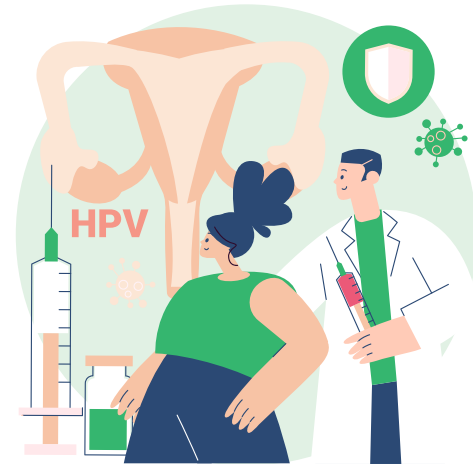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산부인과 최민철 교수



외래 진료 시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또는 “이미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백신 접종이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인류가 개발한 백신 중 유일하게 암을 직접 예방하는 백신이다.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아 2016년부터 만 12~13세 여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남성 접종에 대한 필요성, 기존 백신에 이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 추가 접종 등 HPV 백신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2024년 개정된 대한부인종양학회의 HPV 백신 진료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HPV 백신의 이해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등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약 80%를 차지한다.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 접종은 자궁경부 전암병변과 자궁경부암은 물론 구인두암, 항문암, 음경암 등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승인된 HPV 백신은 2가, 4가, 9가 백신 세 종류다. 2가 백신은 주요 원인 바이러스인 HPV 16, 18형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예방할 수 있다. 4가 백신은 생식기 사마귀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HPV 6, 11형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으며, 9가 백신은 여기에 다섯 가지 고위험인 HPV 31, 33, 45, 52, 58형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

HPV에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을까

HPV 백신은 성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이나 심지어 이미 HPV에 감염된 경우에도 만 45세 이하라면 HPV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4~4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4가 백신 임상시험에서 HPV 관련 질환의 예방 효과

가 90.5%로 보고됐다. 또한 HPV에 감염됐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다른 HPV 유형에 대한 감염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단, 현재의 HPV 백신은 치료 백신이 아닌 예방 백신으로 이미 감염된 HPV 유형을 제거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

남성도 HPV 백신 접종을 해야 할까

HPV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에게도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성 접종은 HPV 전파를 줄여 자궁경부암 예방에 기여하는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위험 HPV 감염 연령대를 보면 여성의 25%가 35세 이상, 남성의 29%가 27~45세이므로 HPV 관련 질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성인 남녀 모두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 5월 6일부터 만 12세 남성 청소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만 15~26세 남성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27세 이상의 남성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미 백신 접종한 여성에게 HPV 9가 백신 추가접종이 필요할까

2016년도 9가 백신 도입 이전 2가 또는 4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성의 9가 백신 추가접종에 관한 임상적 수요가 존재했다. 보고에 따르면 9가 백신 추가접종에 따른 주사 부위 통증, 부종, 홍반 등 국소 이상반응은 더 많이 보고됐으나 전신 이상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추가된 HPV 아형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9가 백신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HPV 16, 52, 58형 감염이 흔한 만큼, 9가 백신 추가 접종은 HPV 52, 58형 등 고위험 유형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HPV 백신은 안전할까

2013년 일본에서 HPV 백신 접종 후 일부 여학생에서 만성 통증, 보행 장애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HPV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도 있었다. 일본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는 대대적인 역학 조사를 실시했고 HPV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2년부터 HPV 백신의 적극적 접종 권고를 재개했다.

다만 유의할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 가벼운 어지럼증 등이 있다. 이는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접종 후 15~30분 정도 원내에 머물며 아나필락시스 대비를 철저히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자궁경부세포검사의 선별검사 등의 노력으로 만 12세 여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74%, 자궁경부세포검사 수검률은 51.5%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2044년에 WHO의 경부암 퇴치 기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WHO가 제시한 90%의 HPV 백신 접종률과 70%의 수검률을 목표로 한다면 퇴치 시점을 10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궁경부암 퇴치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 단일공 로봇수술 노하우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모하메드 나빌 알알라위 임상강사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맘 압둘라흐만 빈 파이살 대학교에서 비뇨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연수를 먼저 다녀온 동료들이 입을 모아 'AMC' 를 강력 추천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여러 진료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훌륭한 의료진과 압도적인 고난도 수술, 그리고 뛰어난 치료 결과까지! 이곳에서라면 의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의료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로봇수술 배우기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부인과 질환에 대한 최소침습수술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봇수술 건수와 난도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첨단 수술법인 단일공 로봇수술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러한 첨단 수술 기법이 자리 잡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을 로봇수술트레이닝센터에서 뒀습니다. 온라인 사전 교육부터 장비 조작법 교육, 동물 모델 실습, 진료 과별 특화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 덕분에 단기간에 로봇수술의 기본기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로봇수술 트레이닝 세션 담당교수인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부교수(왼쪽)와 기념촬영.

동관 19층에는 저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서울아산병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의학자에게도 진심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료 프로세스와 최신 의료장비는 물론, 병원 안에서 식사와 쇼핑, 은행업무, 심지어 이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춘 것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동관 19층에 있는 무슬림 기도실을 가장 좋아합니다. 병원 직원들 중에도 동관에 19층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웃음). 기도를 마치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바쁜 연수 일정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저만의 아지트입니다!



동관 19층 기도실 창 밖을 배경으로 찰카
한강 뷰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 곳을 여행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휴일에는 한국에 함께 온 가족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구경한 경복궁은 정말 아름다웠고,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도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키즈카페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어요(웃음)! 한국 음식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최근에는 인천에 다녀왔고 조만간 부산과 제주도도 여행할 계획입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는 중입니다!



경복궁에서 한껏 곤룡포가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

교수님의 노하우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지도교수인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님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따뜻한 인품, 그리고 아낌없이 지식을 나눠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개복수술과 최소침습수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치료 접근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교수님,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산부인과와 수술실 의료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8월 연수를 마칠 때까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수준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의 멘토인 이사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맥주입 간호의 내일을 여는 사람들

정맥주입 치료는 혈관 상태와 약물 특성 등에 따라 환자 안전과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한 전문성을 요한다. 이에 정맥지원 유닛 간호사들은 보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하고자 정맥주입 전문간호사 공인 자격(CRNI) 취득에 도전했다. 2024년부터 최근까지 도전의 결실을 맺은 이들을 만나 그간의 노력과 임상 현장에서 변화를 들어보았다. <편집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내과간호2팀 정맥지원 유닛 신보라·박소현·민소윤 주임, 탁경내 대리, 박경숙 유닛 매니저, 정미경 대리

CRNI에 대해 소개해 달라

박경숙 ‘Certified Registered Nurse Infusion’의 약자로, 정맥주입 간호 분야의 핵심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국제 공인 자격이다. CRNI는 국제정맥간호사회(INS)의 지침을 기준으로 혈관 접근 방법의 선택, 카테터 유지 여부 판단, 드레싱 관리, 약물 및 수액요법, 감염 예방, 합병증 관리 등 정맥주입 치료의 핵심 영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현재 유효한 RN 면허와 최근 2년 이내 1,600시간 이상 정맥주입 간호 사정, 계획, 평가 등의 경험이 필요하다. CRNI는 간호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격이라고 생각한다.

자격 취득의 배경과 과정은

신보라 정맥지원 유닛은 그동안 원내 정맥주입 간호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소현 부서에서 주 1회 병원 도서관 스터디룸을 예약해 정기 스터디를 진행했다.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기보다 각자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임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학습했다. 평소 수행하던 간호를 이론과 근거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병원에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해 준 덕분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임상 현장에서 달라진 점은

민소윤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다는 점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치료 과정과 주의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일하는 재미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정미경 협업과 교육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술기를 대신 수행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병동 간호사와 함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보라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실제 조직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맥주입 치료의 최신 지침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병원 지침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해 정맥주입 간호를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다.

이번 자격 취득은 간호사로서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탁경내 임상 술기와 판단을 더욱 명확한 근거로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동료이자 리더로서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맥간호를 제공하고 싶다.

글로벌 병원의 AI 사용법 ① 데이터와 시스템이 만드는 의료 혁신



양동현 AI혁신지원실장

전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병원들은 AI를 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지능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영역에서 AI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의료 혁신의 최전선에서 AI가 진료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힘: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과 정밀 의료

메이요클리닉은 자체 데이터 플랫폼인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 - CONNECT’를 주축으로 7개국 8개 글로벌 병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뒤 연방학습(Federated Learning) 방식으로 공유해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초 가량의 심전도만으로 부정맥을 선별하는 AI 알고리즘을 EHR에 탑재했으며, 생성형 AI를 통해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클리블랜드클리닉은 2024년부터 영상, 앰비언트 AI를 아우르는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거버넌스를 전사적으로 확립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IBM과 10년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초로 병원 전용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적은 데이터와 짧은 시간으로 신약 및 면역 항암 타깃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슬론케터링 암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유전체 AI 학습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만 건 이상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MSK-IMPACT) 데이터와

통합 코호트(MSK-CHORD)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등 정밀의학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동반자: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은 생성형 AI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검토한 뒤 EHR에 통합하도록 하는 앰비언트 문서화 도구 ‘애브리지(Abridge)’를 임상 의사 3,000여 명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진 번아웃은 21% 감소, 업무 외 기록 시간 41%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흉부 CT 이미지만으로 폐암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 ‘시빌(Sybil)’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MD앤더슨 암센터는 중앙데이터과학연구소(DSIO)를 중심으로 방사선 치료 윤곽 자동화, 전자 병리 영상 AI 등 치료 영역은 물론, 로봇 물류와 같은 비진료 영역에도 AI를 전격 도입해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대부속 샤리테병원은 디지털 헬스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독일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연방학습 기반 영상 AI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선별 및 중환자 악화 예측을 위한 AI 모델을 실시간 진료 환경에 적용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 공간의 변화와 우리 병원이 나아갈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AI 현장 리포트’ 코너에서는 의료 AI의 발전 흐름과 트렌드, 우리 병원만의 의료 AI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환자간호팀 김해은 사원입니다

입사 전후로 우리 병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입사 전에는 'Challenge'라는 병원의 모토가 단순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무를 시작하고 그 의미를 매일 실감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계속 경험하고 중증도 높은 환자의 회복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병동으로 이동하고, 수술을 마친 환자는 새롭게 받는 '인 앤 아웃'이 매우 활발한 곳이에요. 매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근력이나 반응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환자분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매시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낯짜가 헛갈리는 웃픈 순간이 잦습니다.

업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구강 간호나 부분 목욕처럼 기본 간호를 좋아해요. 작은 변화에도 환자 상태가 달라 보이거든요. 보호자도 알아보고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 뿌듯해요. 환자의 작은 변화를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 환자가 눈에 띄게 호전되면 보람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져요. 병동으로 이동하는 환자분이 고생 많았다며 제 이름까지 기억해 주실 때는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환자실에선 긴장되는 순간이 많죠? 갓 독립해서 수술 후 환자를 단독으로 처음 맡았던 날,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한 채 선택한 간호



“중환자실에선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지만 그때마다 긍정적인 태도로 환자분들께 밝은 에너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의 중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얼른 성장해서 이러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긴장돼요.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나요? 프리셉터 선생님 곁을 떠나 독립을 준비하던 시기에 다른 선생님께서 "정말 잘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겐 자신감이 됐고 "금방 성장할 것 같다"라는 응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업무 이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처음 접하는 질환이나 응급 상황이 많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경험한 상황을 복기하며 같은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요.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동기들과 먹는 아침 라면이 요즘 저의 큰 행복입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트 위에서 배우는 유연함



수술간호팀 홍순형 대리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

모든 것이 멈췄던 코로나 시기에 역설적으로 저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실내 운동시설이 문을 닫아 운동할 곳을 찾기 어려웠죠. 넓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테니스는 몇 안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코트 위에서 공을 치며 느낀 해방감은 제가 테니스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테니스만의 매력은

'끝이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껴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파트너와의 호흡, 상대의 전략에 따라 승패는 언제든 달라집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큼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매 경기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큰 매력입니다.

업무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같은 종류의 수술이라도 환자의 상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테니스 역시 공의 궤적과 속도가 매번 달라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본래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코트 위에서 다져진 평정심은 업무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긴박한 순간일수록 우선순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입문을 고민한다면 '예쁜 게 최고'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테니스는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라켓과 운동복은 코트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운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또한 테니스는 네트 너머로 공을 넘기는 것조차 많은 노력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시חק오와 좌절도 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큼니다. 코트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일상에 활력과 단단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 '나의 취미생활'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급실에서 피어난 온기

응급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와 분주한 의료진의 움직임 속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박환희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저를 베풀어 준 것은 치료보다 선생님의 온기였습니다. 의술이 몸을 치료했다면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은 제 마음을 다독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또 다른 환자의 곁에서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요.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베풀 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 매일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습니다. 응급 수술을 앞둔 중환자부터 검사 후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 처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응급실을 거쳐 갑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간절한 순간에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손을 내밀 수 있는 응급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간호팀 박환희 과장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근 기행

디자인·콘텐츠팀 정선아 과장, 특수검사팀 윤종현 대리

“오늘은 뭐 입을까?” “어제 블랙이었으니까 오늘은 좀 밝은 걸로 입을까?” “신발은?” “바지가 짧으니 오늘은 낮은 거 신자.” 결혼 8년 차, 우리는 여전히 커플 아이템을 즐긴다. 출근 전 옷과 신발을 맞추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집을 나선다. 병원까지는 도보로 약 30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의 날씨와 출근까지 남은 시간을 보고 동선을 고른다. 시간이 여유 있고 날이 좋은 날엔 자연 가득한 올림픽공원 뚝방길로 향한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마저 한 템포 느리게 부는 듯한 길이다. 그 길에선 발걸음도,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번 주말엔 뭐 할까?” “영화 볼까, 아니면 바람 쐬러 어디 구경 가볼까?” 다가오는 주말을 생각하며 행복한 출근을 한다. 준비가 늦은 날에는 아파트 사이길을 지나 성내교를 건너는 단거리 코



스를 택한다. 발걸음은 빨라져도 두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우리만 아는 얼굴들과 마주한다. 손주 사진을 배경으로 한 컴퓨터로 유튜브 뉴스를 보는 건물 관리자님, 24시간 영업하는 중공집의 늘 같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종업원님 (월요일은 휴무다), 엄마보다 할머니 팔짱을 더 꼭 끼고 성내교를 건너는 3대 모녀, 세 분이 걷다가 요즘은 두 분 뿐이라 왜인지 궁금한 할머니들... 그들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가 잠깐 교차한다.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은 없지만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꼭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다들 행복하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하루 두 번, 매일 오가는 30분의 길 위에서 오늘도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배운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래간호팀 추민경 주임

‘헬스에디터 - 알부민, 약으로 채우는 게 효과적일까?’에 최근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도움이 됐습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겠어요.

내과간호2팀 최형우 선임기능

‘나의 취미생활’ 코너에서 해금 연주를 즐기는 선생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해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는데, 연주회 정보도 알려주시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외과간호2팀 윤상화 사원

‘AMC IN(人)sight - 환자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고자 합니다’에서 양지명 교수님을 보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환자를 위해 새로운 치료에 도전하는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저 역시 병동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팀 유현정 차장

‘뉴스 - 6개월 이상 약물 복용하면 골절 위험 43% 증가’ 기사가 부모님께서 장기간 약물 복용 중이셔서 그런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중환자간호팀 박영란 사원

‘비타민 D데이 화보’를 보며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라 기분 좋았습니다. 날씨 요정이 함께해서인지 사진도 잘 나왔네요~